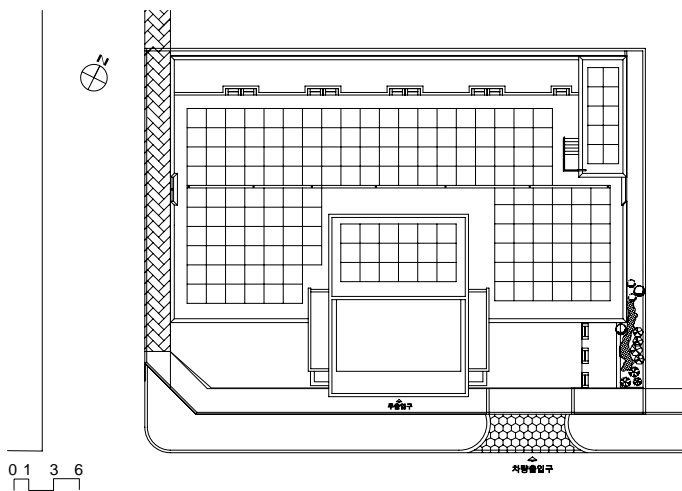


호텔 갤러리

Hotel Gallery

● 배치도

● 건축개요



-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2
- 지역지구 중심상업지구, 도시설계지구, 도시설계에 의한 업무용지
- 용도 교육연구및복지시설(연구소), 일반숙박시설(호텔), 근린생활시설
- 대지면적 1,105.90㎡
- 건축면적 882.45㎡
- 연면적 9,504.07㎡
- 건폐율 79.79%
- 용적률 598.00%
- 규모 지하 3층, 지상 8층
-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 내부마감 바닥 - 지정대리석, 민속장판 / 벽 - 지정벽지, 대리석, 무늬목 / 천정 - 비닐페인트, 지정천정지
- 외부마감 T-30 오이스트펠, 알미늄슈트패널, T-16 파스텔복층유리
- 설계담당 민영만
- 구조설계 세현 구조 기술사 사무소
- 설비설계 (주)대유 MEC
- 전기설계 (주)다우텍
- 시공사 (주)오스빌건설
- 설계기간 1999
- 공사기간 2000. 12 ~ 2004. 2
- 사진 채수옥



- Location Seohyoun-dong 272-2, Seongnam-si, Bundang-gu Gyeonggi-do, Korea
- Site area 1,105.90㎡
- Bldg. area 882.45㎡
- Gross floor area 9,504.07㎡
- Bldg. coverage ratio 79.79%
- Gross floor ratio 598.00%
- Structure Steel & R.C
- Bldg. Scale three stories below ground, eight stories above ground
- Design period 1999
- Construction period 2000, 12 ~ 2004, 2







- | | | |
|---|---|--|
| 1 | 2 | |
| 3 | | |
- 1. 중앙 E.V. 홀
 - 2. 주차장 출입구
 - 3. 로비 (프론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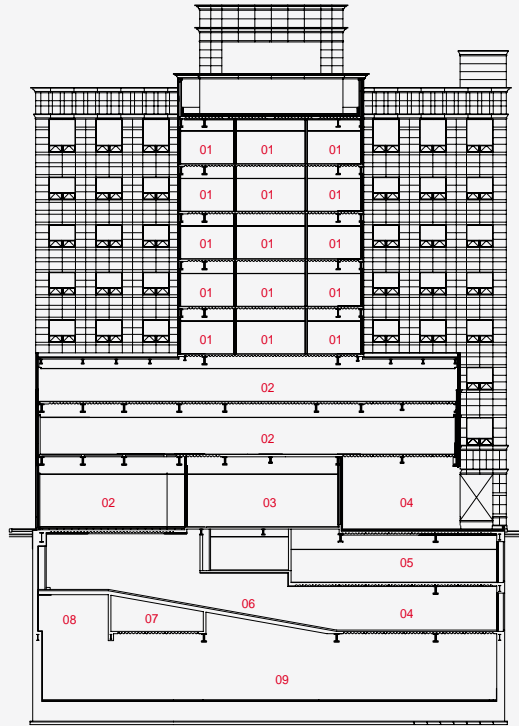
업무 여행자

꼭 짜인 일정, 업무의 성과에 대한 중압감.

그들에게 필요한 곳은 못다한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바로 비즈니스 호텔이다.

낮선 도시로의 업무 여행은 늘 가슴설레이긴 하지만 또다른 한편엔 숙박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

호텔과 모텔로 대변되는 우리의 숙박 문화 속에서 적절한 숙박시설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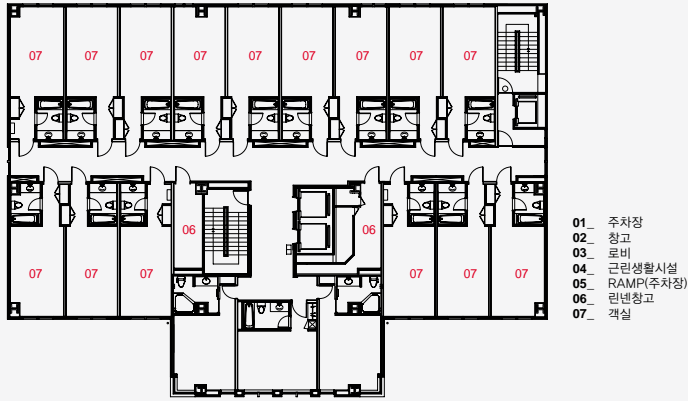
- 01. 객실
- 02. 근린생활시설
- 03. 로비
- 04. 주차장
- 05. 교육연구시설
- 06. RAMP
- 07. 창고
- 08. CAR LIFT
- 09. 기계식주차장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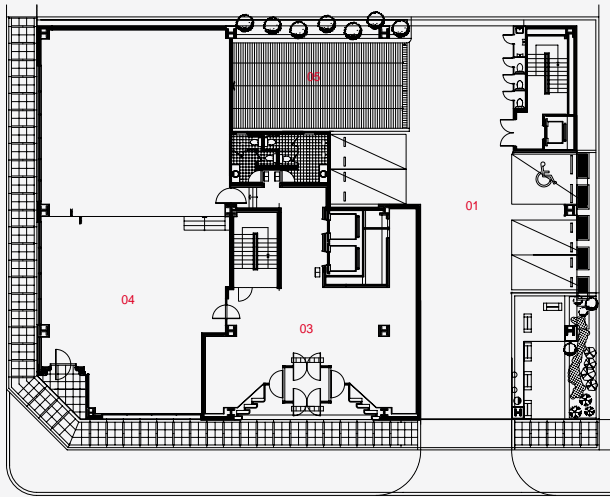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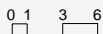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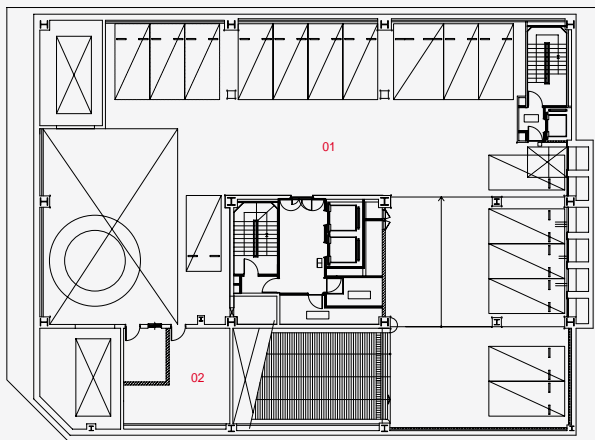




5~7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1	각 층 ELEV. 홀
2	3층 BAR, ROUNGE
3	객실

분당, 서현역

주거, 교육, 업무, 교통환경 등이 좋아 기업체 연구소, 벤처기업, 공기업 본사 등이 밀집해있는 업무 중심 공간.

그 중심에 호텔 갤러리가 있다.

업무의 특성상 외국인 업무 여행자가 많고 체류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특징을 갖고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곳이 바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곳, 비즈니스 호텔이다.

호텔 갤러리

호텔 갤러리는 업무 여행자 전문 호텔이다.

호텔의 고급스러운 장식과 모텔의 낮간지러움을 탈피하고 간결한 형태와 재료로 절제된 품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검푸른 화강석 (오이스트 펄)의 외장은 단정한 검정색 슈트를 연상시킨다.

겹겹이 줄어들어간 출입구는 입구를 강조하기보다는 건축 한계선에 맞닿아있는 건물 이 갖는 겸손함의 또다른 표현이다.

ELEV.홀, 로비 벽체에 외부 화강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소 좁은 공간을 재료의 간결함으로 확장시켜보고자 하였다.

3층의 BAR, ROUNGE는 천창을 도입하여 부드럽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객실은 여유있다. 정보통신설비도 완벽하다. 업무와 휴식을 겸할 수 있을만큼 크게 하였다.

그리고, 건축적인 이야기를 담기엔 주변 여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담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이곳을 찾는 모든 업무 여행자가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찾고싶은 그런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